



쌍둥이



림 순 석

산과 들에 봄빛이 짙어가던 어느날이었습
니다.

축구를 하느라 저녁늦게야 집에 들어선
나에게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습
니다.

《애, 오늘 옆집할아버지네 집에 손주가
왔더구나. 너와 같은 2학년생인데 혼자서
그 먼길을 오지 않았겠니. 참 용하기두 하
지.》

《그래요? 히야, 정말...》

벌써 나의 머리속에서는 그 애의 모습이
상상화처럼 그려지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난 씩 하고 웃고말았지요.

《갑자기 왜 웃니?》

쌀함박을 들고 부뚜막으로 다가서던 어
머니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유치원때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 생각
안 나세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도 그제야
생각이 났던지 쌀함박을 든채로 허리를 굽
혔습니다.

《호호호.》

《해해해.》

나도 따라웃고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었지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어느날 나는 손가락을
불에 갖다대며 토달거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날 미워해요. 똑똑 꼬
집어요.》

왜 그런지 할아버지는 나를 만날 때면 그
냥 지나치는 때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시다가 내 불을 꼭 쥐었

다 놓곤 했지요.

그런데도 어머니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
니다.

《그건 네가 고와서 그러는거야.》

《거짓부리, 고우문 풀어주지 꼬집어주나
요?》

《호호, 할아버지한테는 먼곳에서 군관을
하는 아들이 있단다. 거기에는 너만한 손자
애가 있는데 신통히 너와 비슷하게 생겼다
누나. 그래서 널 보면 귀여운 손자애를 보는
것 같아 그러시는거야.》

그때부터 나에게는 할아버지를 볼 때면
그 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버릇이 생겨났
어요.

바로 그 손자애가 지금 할아버지의 집에
왔다는것입니다.

《어머니 그 엘 봤나요? 정말 나처럼 생
겼나요?》

어머니는 싱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옆집할아버지는 산림감
독원인데 나를 무척 고와했습니다.

지금은 다 자란 자식들이 먼곳에서 살고
있어 할머니와 오붓이 살고있는 할아버지였
지요.

요즈음 할아버지는 한달전에 젓골벼랑에
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다리때문에 얼마나 고
생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우뚝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 애가 어떻게 왔을까? 할아버지
가 보고싶어왔을까?

《글쎄 비슷한것 같애. 네 눈으로 직접

보렴.》

호기심이 굴뚝처럼 뻗친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할아버지한테 가볼래요.》

내 마음을 부추기듯 가마에서는 물이 설설 끓고 푸푸 소리를 내며 가마뚜껑이 들썩거렸습니다.

《원, 애두 참. 우물물을 통채로 마시겠구나. 할아버지네 집에 처음 온 애인데 할 이야기가 오죽 많겠니? 래일 가보렴.》

어머니는 가마안에 쌀을 안치며 말했습니다.

듣고보니 어머니말이 옳은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물이 끓던 소리도 잦아들고 뿜어오르던 물김도 가라앉았습니다.

x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애를 할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

첫 수업을 알리는 경쾌한 전자음악선율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술렁거리던 교실이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한 애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알고들 지내세요. 산림감독원을 하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 전학해온 동무입니다. 다친 다리때문에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를 도울 기특한 마음을 안고온 동무예요. 이름은 박효진. 축구도 아주 잘하는 동무랍니다.》

호기심에 찬 수십쌍의 눈길이 부채살처럼 그 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박효진.》, 《박효진.》하고 이름을 되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저 할아버지를 보고파 온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왔단 말인가?

나는 그 애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다부진 내 몸매에 비해서는 좀 호리호리한 몸집, 입귀가 오른쪽으로 쳐들린것이라든가 코날이 오뚝 선것은 나와 좀 달랐지만 네모진 얼굴에 약간 두드러진 불이며 어

딘가 순박해보이는 까만 눈은 비슷해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할아버지가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 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그날 수업이 다 끝나자 선생님이 나와 호진을 불러왔습니다.

조용한 교실에는 우리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 애는 나를 자세히 보더니 내 팔에 달린 소년단반장열성자표식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바라보던 선생님이 생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찌면 쌍둥이 같을가요?》

우리는 멍적어 고개를 돌리다가 서로 눈길을 마주쳤습니다.

내가 픽 하고 웃자 그 애도 따라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효진학생이 이제부터 1소년반에서 생활하게 돼요. 가까운 이웃에 있으니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하세요.》

선생님은 믿음에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를 나선 우리는 어깨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중천에 떠오른 해빛을 받아 산기슭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메세들은 들까불며 떨기나무사이를 날아왔습니다. 문득 축구를 잘한다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 성큼 물었습니다.

《너희네도 거기서 축구를 많이 했니?》

《응.》

《축구할 땐 뭘했니? 공격수?》

《아니, 문지기였어.》

《그-으-래?-》

나는 하마트면 환성을 지를뻔 했습니다.

축구경기를 할 때면 애들은 저마다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문지기는 잘 서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복덩이가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이야.

나는 저도 모르게 효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됐어. 이제 1등자린 먹어놓은셈이야. 행, 2소년단반애들 코대를 꺾어놓게 됐어.》

사기가 올라 싱글거리던 나는 딱 굳어진 채 생각을 굴렸습니다.

가만, 소뿔은 단김에 뽑으랬다고 아예 오늘 오후에?...

《오늘 한번 불어보지 않겠니?》

축구라면 오금을 못쓰는 나는 2소년단반 애들에게 꼴을 먹이는 장면을 보고파 막 감질이 날 정도였지요.

학교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고 우쭐거리는 그 애들을 어떻게 하면 눌러놓을까 하고 별러온 나였으니까요.

그런데 효진이가 도리머리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돼. 오후에 난 할아버지를 도와서 잣나무모판을 만들어야 해.》

《그럼 양묘장에 가야 하니?》

《아니, 할아버지네 터밭에다 만들어.》

《할아버지네 터밭에?...》

《응. 이제 나무를 많이 심자면 모를 키울 땅이 모자란대. 그래서 할아버진 집주변 터밭에까지 나무모를 심기로 했어.》

《그럼 네가 그걸 돌봐야 하니?》

《그래서 내가 온거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보겠지만 나두 짹짹 돌보려고 해. 할아버진 다리를 상해서 산이랑 양묘장이랑 다 돌볼래도 힘드시거든.》

나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었습니다. 이 애가 왜 할아버지네 집에 왔는지 이제는 알만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이로구나.)

나는 효진이를 선망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내 눈길이 떨어질 줄 모르자 그는 얼른 손을 불에 가져갔습니다.

《내 얼굴에 뭘 묻었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야.》

나는 유치원때 할아버지가 내 불을 꼬집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한테서 들었어.》

《하하하.》

우리들은 배를 그러안고 실컷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웃음을 딱 멈추고 그를 뵈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까짓거 이제라도 쌍둥이 못될거 있니?》

우리 쌍둥이 하자꾸나.》

《응, 좋아.》

가만 보니 효진이도 꽤나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는 딱소리가 나게 두손바닥을 맞췄습니다.

2

하늘중천에 떠올랐던 해는 어느덧 한뼘이나 기울었습니다.

양묘장을 떠난 나는 손달구지채를 잡고 썩썩 걸었습니다. 손달구지우로 머리를 내민 잣나무모가지들이 내 발걸음에 박자를 맞추어 한들한들 춤을 추었습니다.

학교갈 시간이 되기 전에 일찍 양묘장에 들러 한달구지 듬뿍 신고 떠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파외시간에 온 학교가 펼쳐나 나무심기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은 온 나라가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선 때에 우리도 소년단립에 많은 잣나무를 심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끓는 가마뚜껑처럼 들썩거렸습니다.

(오늘 본때를 보여주어야지.)

내가 이렇게 버르는것은 소년단반장으로서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나 시원시원하게 제끼는 이 남웅이의 숨씨를 효진이에게 보여주고싶었기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효진이가 할아버지를 도와 잣나무모판을 가꾼다는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내 가슴속에서는 은근히 승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가 되자고 하면서 산림복구전투에서 내가 효진이보다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양묘장에 들러 이렇게 많은 잣나무모를 신고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바라보이는 길언덕에 올라선 나는 손달구지채를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이 땀이 내똥은 이마를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이때 나를 찾는 소리가 등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언덕아래에서 효진이가 달

려오고있었습니다. 어깨총을 한 병사마냥
삽자루를 마대에 들들 맡아 어깨에 멘 그
는 의아한 눈길로 손달구지를 내려다보았
습니다.

《이건 무슨 모듈이니?》

《오다가 양묘장에 들렀댔어. 가는 길에
먼저 가져가면 좋을것 같아서...》

《너두 참. 이 좋은 일을 왜 혼자 하니?
나한테두 좀 귀뽀하면 안되니?》

《나야 소년단반장이 아니니?》

나는 좀 으쓱해져 점잔을 빼보려고 목소
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끝자.》

그런데 손달구지채를 잡던 효진이가 갑자
기 소리쳤습니다.

《가만, 좀 세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손달구지에
있는 잣나무모 밑등을 찬찬히 만져보았습
니다.

《나무뿌리를 다시 짜주어야겠어. 흙이
떨어지누나.》

정말 풀어진 새끼줄사이로 흙이 조금씩
떨어져나오는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손달구지가 들추면서 새끼줄이 풀어
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쯤한건 새발의 피지요.

《그냥 놔둬. 이젠 거의다 왔는데 흙이 떨
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니?》

나는 손달구지채를 잡았습니다.

《가만 좀 있어. 흙이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면 나무가 잘살게 아니야.》

다짜고짜 나무모를 내린 그는 마대로 다
시 퐁퐁 싸매는것이였지요.

그 모양을 지켜보던 나는 입을 다시고말
았습니다.

문득 어제일이 떠올랐습니다.

과외복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우리
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로옆 소나무밑에 꺾어진 솔가지가 눈에
보였던것입니다.

《어떤 애가 이런 못된짓을... 예익, 잡기
만 하면...》

나는 눈먼 욕질을 하며 솔가지를 획- 집
어버렸어요.

그런데 효진이가 그 가지를 집어들더니
꺾어진 가지를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더니

소나무의 꺾어진 자리를 찾아 꼭 쥐고있는
것이였습니다.

《애, 어서 가자. 그런다구 다시 살겠
니?》

나는 그만 씩 하고 웃고말았습니다.

어쩐지 효진이가 좀 처녀애같이 논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다구 죽은 가지
가 살아나겠나요.

그런데 오늘은 또 나무모를 놓고 오물쭈
물하는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 씨원씨원하게 제끼길 좋아
하는 나한테 이런건 좀 마음에 들지 않았
지요.

(에- 저만 나무를 사랑하는줄 아나봐.)

학교운동장은 삽과 곡괭이를 든 아이들로
오구구 뿔었습니다.

나는 2소년단 반장인 영수를 찾아 두리번
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나무심
기를 끝내고 꼭 겨루고싶었거든요. 언제부
터 나는 2소년단반애들에게 도전할 날을 속
으로 별러왔으니까요.

바로 오늘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때를 보여줄테다.)

한무리의 애들이 둘러선 속에서 무슨 이
야기를 듣느라고 서있는 영수의 모습이 마
침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영수의 옆구리를 쿡 찔렸습니다.

《오늘 나무심기 끝내고 축구하자.》

《뭐? 또 망신하고과 그러니?》

영수는 우쭐해진 얼굴에 히죽 웃음을 지
었습니다.

나는 허리에 두손을 얹고 큰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너희 2반한테서 한팔도 안 먹으
테다.》

별안간 영수가 닭이 물을 넘기듯 머리를
젖히고 하하하 통쾌하게 웃어댔습니다.

애들이 눈이 켜해서 나와 영수를 쳐다보
았습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좋아, 오늘 너희 1반한테 다시 한번 버릇을
가르쳐줄테다.》

우리 소년단반애들도 본때를 보여주자고
윽윽 했지요.

《오늘 나무심기에서두 1등, 축구에서도
1등 하자.》

나는 2반애들이 보란듯이 삼을 거꾸로 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마치 축구경기장에라도 나가는듯이 삼과 팽이날을 한꺼번에 맞짱으며 《야-》하고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쟁-》하고 울리는 쇠소리는 우리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느덧 산에 오른 나는 효진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쌍둥이처럼 나란히 심고싶었지요.

땅에 삼을 박던 나는 효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효진아, 우리 내기할까?》

《무슨 내기?》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심는가 내기 하자 말이야.》

《좋아.》

효진이는 싱긋 웃음을 띄우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가만, 이기는 애한테 무슨 상을 준다?》

《형이라고 부르지 뭐. 쌍둥이니까...》

《좋아. 좋아-》

나의 입귀가 절로 벅글썩해졌습니다.

(보나마나 날 형님이라고 부르게 될걸.)

나는 옷까지 벗어제끼고 히힝 소리를 내면서 구멍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몇구멍이를 제낀 나는 효진이쪽을 넘겨다보았지요. 어째서인지 효진이는 별로 자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짐작으로도 구멍이수가 나보다 작아보였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자세히 보니 효진이가 판 구멍이는 다른 애들것보다 별로 커보였습니다.

그러니 적게 팔수밖에...

《이건 왜 크게 팠니?》

그러자 효진이가 구멍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긴 땅이 좀 나쁜것 같애.》

나는 구멍이주변에 파놓은 흙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거무스레한 흙은 별로 없고 탁구알만 한 돌멩이들과 드문히 섞인 석비레들...

《내가 파는 땅두 같애. 그렇다고 나무가 죽겠니?》

옆에서 구멍이를 파던 애들이 일손을 멈추고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죽지야 않겠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러는데 석비레땅에는 부식토와 진흙을 골고루 넣어주면 좋대. 그래야 물을 주어도 습기를 오래 잡아둘수 있다는거야.》

듣고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옆에 선 애들도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효진이의 말대로 진흙을 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늦어지면 축구는?...

나는 영수네쪽을 다시 건너다보았지요. 어쩐지 미타했지만 효진이의 고집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다른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2반애들이 거의 따라왔어. 어쨌든 늦지 않게 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오는데 효진이가 나를 찾았습니다.

《가만 보니 우리 반 구역이 특별히 땅이나쁜것 같애. 다른 동무들도 다 진흙을 섞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젠 다른 애들까지?)

애들이 효진이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효진이 말이 맞아. 우리도 아까 다 들었어. 할바엔 똑바로 해야지 뭐.》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꿀먹은 벙어리모양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지요. 동무들이 다 좋다는데야 내가 뭐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애들을 둘러보며 언짢은 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2반애들과 약속한 축구 생각하구있지? 우리가 먼저 끝내야지 늦장을 부리면 질것 같으니까 꺾부린다고 시시하게 놀수 있거던.》

《알겠어. 빨리 하겠어.》

잠시후 효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도록 애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나는 악새목을 해가지고 산아래를 살폈습니다.

그새 나무를 다 심은 다른 반 애들이 산에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달라니?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한테 질텐데.》

언제 왔는지 손에 삼을 든 영수가 히벌쭉거리며 서있었습니다.

《우리 걱정은 안해도 돼. 내려가 기다리
기나 해.》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통명스러운 말
이 튀어나갔지요.

뒤틀린 내 심정을 짐작했는지 영수는 히
죽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어. 인차 따라와!》

영수는 히물히물 웃으며 손을 슬쩍 쳐들
어 보였습니다.

(날 놀리누나.)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수가 없었지요.

영수를 따라가 당장이라도 본때를 보여주
고 싶었습니다.

(에익.)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내가 판 구멍이에 나
무모를 놓고 묻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냥 묻으면 어떡하니?》

언제 올라왔는지 효진이가 눈이 등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거야 어디 기다려내겠니? 내가 심은
나무는 걱정하지 말아. 그전에두 난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죽는걸 못 봤다.》

나는 뱀이 불끈했지만 흙마대를 등에 지
고 올라오는 아이들의 달아오른 얼굴과 땀
으로 질척한 모습을 보고는 더 말을 못했
습니다.

알고보니 진흙을 찾아 여러곳을 다니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다 심자 나는 서둘렀습니다.

《이젠 빨리 운동장으로, 2반애들이 기다
리고 있어.》

운동장으로 내려온 우리는 옷을 벗어제겼
습니다.

그런데 효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진인 안 내려왔니?》

《글쎄, 내 뒤를 따라 내려오했는데 뭘
잇었는지 다시 올라갔어. 인차 내려오겠다
고 했어.》

한 애가 말했습니다.

(효진이 없으면 안되겠는데.)

나는 속이 달아 소년단립쪽을 바라보다가
《에익.》 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2반애들이 빨리 시작하자고 계속 재촉했
으니까요.

효진이 없으니 경기는 영 망태기였습
니다.

나는 등이 달았습니다. 그새 우리 반이 두
꼴이나 먹었으니까요.

《이 앤 뭘해?》

나는 눈이 콧웃해가지고 소년단립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야 운동장 한모퉁
이에서 달려오는 효진이의 모습이 보였습
니다.

《뭘하했니? 경기하는걸 모르니?》

나는 신경질적으로 효진이를 흘겨보았습
니다.

《미안해. 좀 늦었어.》

우리는 먹은 꼴을 봉창하려고 땀을 철철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더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아 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돌아가려고 옷을 다 입은 2소년단반애들
은 너무 좋아 그저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양을 바라보던
나는 황소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글쎄 영수네 앞에서 삼까지 맞짱으며 큰
소리친 우리들인데 참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에익, 날만 어둑지 않았다면... 아니, 그
보다 효진이때문이지요. 공연히 자갈이요,
진흙이요 하면서 우물우물 하더니...

아무래도 처녀애들처럼 노는 모양이 큰일
칠 아이가 못되는가 봅니다.

생각할수록 소년단반장인 내가 주대없이
효진이풍에 놀아난것만 같아 가슴은 풀무질
하듯 풀떡거렸습니다.

(안되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효진이를 불
러세웠습니다.

《오늘은 말 좀 해야겠어. 아까 애들이 있
어서 말을 못했는데...》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열이 올라 말했
습니다.

《난 그래두 소년단반을 위한 일에서도
내 마음을 맞추어주는 쌍둥이가 되길 바랐
어. 그런데 오늘 뭐니? 공연히 일감만 만들
어 우리 소년단반위신만 떨구지 않았니. 내
체면은 생각이나 하니?》

효진이는 머리를 들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용아, 난 오늘일이 잘못되었다구 생

각지 않아. 나무를 많이 심는것도 중요하지
만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하루빨리 이 땅
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
겠니. 난 우리가 산림복구전투에서 이 마음
을 같이하는 쌍둥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

《난 뭐 너만큼 나무를 사랑할줄 모르는
줄 아니? 나두 나무를 사랑하기때문에 우리
소년단반이 앞장서자구 양묘장에 가서 남보
다 많은 모를 가져왔구 나무심기에서두 우
리가 제일먼저 끝내자구 했던거야.》

《그래두...》

《됐어, 영이.》

나는 그만에야 손을 댄 저으며 말허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찾는 소리를 등뒤
에 남기고 썩썩 걸었지요. 내 입에서는 썩썩
황소숨과 함께 《고집쟁이야.》, 《소말통이
야.》 하는 말이 연방 쏟아져나왔습니다.

3

그후 우리는 한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냈
습니다.

학교로 오갈 때면 꼭꼭 같이 오던것도 파
로 오군 했지요. 자주 놀러 가던 할아버지
네 집에도 가지 않았고 학교에 와서도 그전
처럼 살뜰한 말이 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
나 인츰 나는 효진이와 다툰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다니던 학교길도 효진이가
없으니 재미없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사이
가 벌어진것을 알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섭
섭해하겠습니까.

그때 기회를 보아 내가 먼저 그의 속을 풀
어주리라 마음먹었지요. 어쨌든 난 소년단
반장이니까요.

얼마동안 가물이 계속되던 어느날이었습
니다.

한낮이면 땀별에 발에 심은 강냉이포기들
은 말할것도 없고 나무잎들까지 생기를 잃
고 후줄근해지군 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
지 세계 불어 가물은 더했습니다.

파외복습을 마친 우리들은 물을 떠가지
고 소년단림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저마
다 제가 심은 나무들을 찾아보느라 법석이
었습니다.

우리 소년단반이 심은 나무들을 돌아보는
나의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모살이를 끝
냈는지 바늘잎들이 싱싱한 기운을 풍기고있
었습니다.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게 가지런히 서있는
나무들을 쪽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반 애
들이 심은 나무보다 우리가 심은 나무들
에서 생신한 기운이 넘쳐나는것이 험등히 알
렸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에 이르러 나는 찬찬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
입니다.

사실 나무를 심는 날 효진이를 고깝게
생각했지만 가물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기두 했지요. 진흙을 섞지 않
고 내가 서둘러 물어버린 나무들때문이였
습니다.

효진이의 말대로 가물면 내가 심은 나무
만 흑시?...

그런데 효진이가 심은 나무와 내가 심은
나무가 조금도 차이없이 싱싱한것이 아닙
니까.

괜한 걱정을 한것이 어이없어 난 코바람
을 불었지요.

(쳇, 저만 아는데 고집을 부리더니...)

나는 옆에서 잣나무잎을 만지고있는 효진
이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진흙을 넣은것
하고 안 넣은것하고 뭐가 다르니?》

그런데 효진이 얼굴이 순간에 확 붉어졌
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려는듯 입을
열려다가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아마 경솔
했던 자기를 돌이켜보는거겠지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 나무들을 돌아본 선생님이 동무들을
우리 구간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들 보세요. 1소년단반동무들이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싱싱합니까. 이 구간은 나
쁜 땅이어서 선생님이 걱정했더랬는데... 동
무들이 정성을 다해서 잘 심었어요.》

선생님은 잣나무를 가리키며 계속했습
니다.

《동무들은 다는 모를거예요. 나무심기하
는 날 선생님은 홀로 산에 남아 진흙까지 날
라다 섞어서 물어주는 효진동무를 보고 생

각이 많았답니다.》

순간 나는 가슴이 후두둑 뛰었습니다.

효진이가 홀로 남아 진흙을?...

진흙을 묻지 않은 구멍이는 내것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심은 나무를 다시?...

그게 진짜라면?...

효진이를 만나 속 시원히 물어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어요.

그런데 물주기가 끝나자 선생님이 나를 찾았습니다. 분과실에 들어서니 선생님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토론글을 준비해야겠어요. 래일 분단모임이 있는데 소년단반이 이번 나무를 심은 경험을 가지고 말이예요.》

《예?》

《왜 그러세요?》

선생님이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갑자르기만 했지요. 선생님앞에서 이렇게 가슴조여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글쎄 내가 동무들앞에 무슨 경험을 말할수 있겠습니까.

분과실을 나선 나는 후 하고 긴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보니 영수가 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쓰고있었습니다.

《효진일 못 봤니?》

《방금 물통이랑 물병이랑 가지고 다시 소년단림에 올라가더구나.》

(응?!)

나는 효진이를 따라서려고 돌아섰습니다.

《참, 남웅아.》

영수의 얼굴은 별스레 생각이 깊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무심기하는 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확실히 넌 나보다 앞섰어.》

(제길.)

나는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팔을 저으며 서둘러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냥 있었다가는 진땀만 뿜을것 같았지요.

숨을 몰아쉬며 소년단림으로 달려간 나는 가지런히 펼쳐진 잣나무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잣나무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효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를 본 효진이는 소리쳤습니다.

《남웅아, 여기 와서 이걸 좀 봐.》

효진이는 잣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비닐병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비닐병에서 작은 관을 통해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나무밑을 적시고있었습니다.

《아까 물을 주면서 보니 모래가 많은 땅이어서인지 이 나무는 물이 인차 빠지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것 같아 해보았어. 그럼 나무가 빨리 살것 같애. 어때? 될것 같니?》

나는 머리를 끄떡이였습니다.

《그래? 야! 그럼 더 만들어서 이런 나무들에 다 달아주겠어.》

효진이는 기쁨에 찬 눈길로 잣나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난 효진이처럼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효진이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웅아, 나 한가지 말 못한게 있는데...》



《뭘 말이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할 때 난 미안했어. 네가 심은 나무들을 내가 다시 심은것 말이야. 사실 그때 말하고싶은걸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것 같아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그날 난 진흙을 날라온김에 네 구멍이에도 꼭 진흙을 넣어주고싶었어. 그때에 심은 나무들을 돌아보던 선생님이 함께 심어 주었어.》

(그랬됐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만 들었지요.

효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심은 나무는 가물에 목이 말라 시들어졌을것입니다.

정말 효진이는 나와 생김새는 비슷해도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보다도 앞선 애였습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 생긴것일까?

나는 호기심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효진아,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우리 할아버지가 대주었어. 며칠전에 우리 아버지한테서 전화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한대.》

《아버지네두 산림을 가꾸니?》

《그럼, 인민군대아저씨들도 산림복구전투에 앞장서자구 모두 떨쳐나섰대. 우리 아버지 식수절날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함께 나무를 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나는 뜨거운 눈길로 효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효진이는 노을이 비낀 하늘가에 눈길을 주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미리 파놓은 구멍이를 보신 원수님께서는 이것은 형식주의라고, 나무를 심을 때에는 진정한 애국의 마음도 함께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구멍이를 파시고 물까지 주시면서 정성다해 나무를 심으시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산림복구 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 몇대를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나무를 얼마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의 땀과 정성을 다 바칠 때 생긴다고 말씀하시었다.

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았어.

지금껏 내가 심은 나무가 살든죽든 땀과 정성을 바치지 않고도 애국의 마음이 있다고 말만 앞세운것을 말아야.

며칠후에 난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집주변에랑 많은 잣나무모판을 만들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다리때문에 고생하시는 할아버지를 돕고싶어 여기로 올 생각을 하게 되었어.》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앞에는 효진이와 있었던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부러진 나무가지 하나 놓고도 제살붙이처럼 아파하던 효진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치던 효진이.

아, 그의 가슴속엔 나무 한그루도 이 땅에 하루빨리 뿌리내리게 하려는 참된 애국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난 제판에는 나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안고살지 못했으니...

진정이 담긴 뜨거운 눈길로 나는 효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효진아, 널 형이라고 부르고싶구나.》

나는 이 한마디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내 마음을 다 담고싶었습니다.

《아... 아니, 그러지 말어. 내가 무슨 형이가? 우리야 쌍둥이가 되자고 하지 않았니?》

효진은 처녀애처럼 얼굴을 활짝 붉히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효진이의 손을 꼭 잡고 쌍둥이들처럼 나란히 서있는 잣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효진이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하나같이 푸르싱싱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효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해도 참된 애국의 한마음을 지닌 쌍둥이가 되자.》

나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결심이 담긴 토론문을 가지고 래일 있게 될 분단모임에서 제일먼저 토론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